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 위화 소설 『제7일』 한역본 및 영역본 서평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지영*

Ji young Lee (2022). Translation and Cultural Appropri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ook reviews of Yu Hua's work "The Seventh Day" in Korean and English. *This article analyzes the reception of Yu Hua's novel "The Seventh Day" in Korean and English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the context of debates about the role of translation. Departing from Venuti's theorization of cultural appropriation and tracing the main factors that have shaped the reception of the translations of the novel into Korean and English, it focuses on the case of "The Seventh Day" through an analysis of newspaper and magazine reviews published in Korea and the U.S. Issues discussed include the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ception towards the novel and the degree of interconnection between the cultural value and its reception at the transnational level. The case of "The Seventh Day" points to the preference of a family-oriented narrative in framing the novel for reception by a Korean readership, and the meta narratives on China that circulate in the West in framing the novel for reception by an American readership as the cultural discourses at work. This article identifies the importance of the theory that understands translation in terms of cultural appropri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orea)*

Keywords: book review, cultural appropriation, Venuti, the Seventh Day, Yu Hua

주제어: 서평, 문화적 귀속, 베누티, 제7일, 위화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강사

1. 서론

2013년 6월, 위화(余華)의 소설 『제7일(第七天)』이 중국에서 출간된 후 이 장편 소설은 『형제(兄弟)』 이후 7년 만에 다시 중국의 언론매체 및 네티즌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심혜영 2017 ; 張清華, 張新穎 2013). 작품 내용과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작가 위화가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책임감을 가지고 대다수가 거론하려 하지 않는, 사회의 사건사고를 간결한 언어로 묘사했다”¹⁾, “일관된 현실 비판 의식으로 중국사회의 황당함과 잔혹함을 담았다”²⁾ 등 높은 평가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를 압도하는 혹독한 비판이 잇달았다. “인터넷 뉴스들을 진부하고 아둔한 언어로 꼬치 꿰듯이 엮어놓았다”, “7년 동안 칼을 갈아 내놓은 것이 고작 블로그 내용을 모아놓은 ‘신문기사 모듬’이다” 등 소설에 나오는 각종 에피소드들을 인터넷 기사에 기반하여 엉성하게 늘어놓았다는 부정적 논평이 줄을 이었다.³⁾ “서구의 취향에 영합하기 위해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오고 미국이 관심가질 만한 사건들만 반영했다” 등의 신랄한 논평도 있었으며, 심지어 “위화의 소설 가운데 가장 형편없는 작품이다”⁴⁾ 등과 같은 극단적인 논평까지 출현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위와 같은 혹평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호의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자국의 엘리트 독자 및 대중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과 미국의 여러 정기간행물, 신문, 잡지 및 온라인 서점 서평들은 일제히 『제7일』을 높게 평가했다. “세계가 사랑하는 작가이자 중국 최고의 이야기꾼인 위화가 소외된 이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중국사회의 부조리마저 유머러스하고 흡인력 있는 이야기로 탈바꿈시켰다”⁵⁾, “『제7일』의 주인공 양페이(楊飛)의 사후 여정은 그의 광활한 조국의 부조리와 슬픔의 윤곽을 드러내 보여준다”(Wang and Barr 2013: 234) 등의 호

1) 余华《第七天》引发探讨:小说如何深度表现当代中国, 中国作家网, 2013年 07月19日, <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7-19/167729.html> (2022.7.12. 검색).

2) 余华出长篇《第七天》冷静看批判, 新浪娱乐, 2013年 07月 30日, <http://ent.sina.com.cn/s/m/2013-07-30/14273975826.shtml> (2022.7.12. 검색).

3) 余华《第七天》:七年是否磨钝剑?, 中国文明网, 2013年 06月 27日, <http://www.wenming.cn/> (2022.7.12. 검색).

4) 余华回应《第七天》争议:交稿时就等着大家来骂, 重庆晨报, 2013年 06月 27日, 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 (2022.7.12. 검색).

5) ‘허삼관 매월기’ 위화의 새 장편소설 ‘제7일’, 주간현대, 2013년 9월 22일, <http://www.hyundaenews.com/7046> (2022.6.1. 검색)

의적 서평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번역서 『제7일』은 한국과 미국에서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양국의 독자에게 동일한 의미와 특징으로 다가가지 않았다. 양국의 가장 광범위한 독자층에게 소개되고 설명될 때 각각 집중하는 관심사나 강조점이 달랐다. 즉, 중국 소설 『제7일』은 번역을 거쳐 한국과 미국이라는 상이한 목표문화권에서 소개되고 이해될 때, 독자적인 번역서가 되어 특정 담론이나 관심사를 반영하고 선호하는 수용 양상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에서 소설 『제7일』이 번역서 서평을 통해 소개되고 이해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2010년대 두 목표문화권에서 그 리뷰 양상의 특이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7일』의 한역본 및 영역본 곁텍스트와 메타텍스트 담론⁶⁾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번역을 거친 이 작품의 초국적 이해과정은 한국적 특수성과 미국적 특수성을 내장하고 있었다. 또한 번역을 통한 작가 및 문학작품의 수용 양상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바, 『제7일』의 경우도 번역을 거쳐 목표문화권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진폭이 달라졌음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공시적 맥락에서 번역서 『제7일』의 수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해의 특이성을 천착하고 비교 분석하려 한다. 분석의 주제로 삼은 것은 『제7일』의 한국적 수용과 미국적 수용의 특징 및 그 배후에서 작동하는 자국적 담론 및 가치이다.

6) 본고에서는 한역본 곁텍스트와 서평 16편 및 영역본 곁텍스트와 서평 14편을 분석하였다. 번역서의 곁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추천사, 작가소개, 역자후기, 작품해설 등 번역된 본문텍스트를 부가설명해주는 텍스트를 가리킨다. 이지민과 한류혜가 제안한 정의를 따른다면 번역된 곁텍스트와 번역본 곁텍스트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번역된 곁텍스트는 원서의 곁텍스트가 번역된 것을 가리킨다. 번역본 곁텍스트는 번역된 곁텍스트를 제외하고 목표문화권에서 새로 추가된 곁텍스트를 가리킨다. 번역본 곁텍스트는 다시 번역본 주변텍스트(peritext)와 번역본 바깥텍스트(epitext)로 나뉘는데 전자는 번역된 본문텍스트와 공간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번역가 서문, 저자 소개, 작품해설, 삽화 등을 나타낸다. 후자는 번역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나 기사 광고 등을 가리킨다(이지민, 한류혜 2022: 6).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는 서평은 번역본 바깥텍스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 번역서의 서평을 메타텍스트로 지칭한 것은 이 번역본 바깥텍스트가 번역된 본문텍스트의 배경지식 및 해석방향을 부연설명해주는 동시에, 목표문화권의 번역기회 및 담화전략을 명시해주는, 본문텍스트에 대한 메타적 기능을 부각하기 위함이다(Pellatt 2013: 1-2).

2. 이론적 배경

2.1.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Translation as Cultural appropriation)

Bassnett & Lefevere(1990: 4-11)은 1990년 출판된 논문집 『번역, 역사 그리고 문화(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의 서문에서 “언어학적 번역 연구가 등가성 규범만을 강조해왔으며 연구 대상 단위(unit)도 단어에서 텍스트로 옮겨갔을 뿐, 그 이상을 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고 이를 비판한다. 아울러 번역학의 발전은 번역이 결코 ‘순수하지 않으며’번역이 발생하는 맥락과 텍스트가 번역되는 역사가 항상 존재해왔음을 보여준다고 역설한다. 그들은 언어학적 관점에 머물러 있는 번역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텍스트와 목표텍스트 사이의 비교 작업을 배척한다. 이 고단한 작업이 일반적으로 ‘제 3의 비교점(tertium comparationis)’에 기반하여 어떤 번역이 다른 번역보다 낫다는 ‘비가시적인 이론(invisible theory)’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Bassnett & Lefevere(1990: 11-12)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언어학적 접근법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란 핵심 개념을 제시한다. 상술한 논문집에 수록된 모든 논문은 이 문화적 전환이란 공통된 목적을 공유하는 동시에 주장한다. 여기서 문화적 전환은 등가에 기반한 ‘과학적인’언어학적 접근법을 버리고 연구 대상 단위를 텍스트에서 문화로 확장시키는, 중대한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한다. 번역과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을 전제하면서 맥락, 역사, 관습 등 광범위한 이슈(the larger issues)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즉, 연구 대상이 재정의되어 번역 과정에 작동하는 문화적 요소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그리고 이 문화적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목표문화권의 권력 및 조작과 연관되어 있다.

논문집 『번역, 역사 그리고 문화』가 출간된 이후 번역 연구는 본격적으로 그것의 패러다임을 교체하게 된다. 문화적 전환이란 연구 패러다임은 1990년대 약 10여 년 동안 특히 각광을 받게 되는데, 이는 번역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적 전환은 연구 대상 단위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며 일반적으로 번역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요소 및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진 문학의 이미지를 연구한다. 따라서 목표문화권의 통제요소에 의해 야기되는 번역현상에 대한 시각이 마련되어 새로운 연구 영역이 열리게 된다. 특히 연구 대상 단위를 문화라는 전체로 보는 넓은 시각은 번역 수용에 있어서 관련 동인(動

因) 탐색이라는 관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을 통해서 기존의 언어쌍 비교와 등가성 규범에 번역 연구를 근시안적으로 접근시키는 문제가 극복되어 특정 수용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데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맥락 및 원인이 찾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술한 문화학적 관점에 기반하여 번역을 연구하지는 움직임에서 번역은 역동적인 흐름을 지닌 작업이나 버전(version)으로 인식된다. 원천텍스트는 번역을 거쳐 완전히 동일한 목표텍스트로 재현될 수 없다. 원천텍스트를 수용하는 목표문화권의 언어, 미학적 관습, 독자의 기대 등이 원천문화권의 그것들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세대와 시공간에 따라 기준 및 선호군(群)이 달라지는 문학번역은 텍스트의 지속적인 변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번역은 필연적으로 부분적인 작업으로 전환되는데 원천텍스트에 내포된 내용과 의미는 번역을 통해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거꾸로 말하면, 번역을 거친 목표문화권의 목표언어에는 원천텍스트에 대한 해석 양상을 나타내는, 필연적인 특징들이 수반된다. 원천텍스트가 번역텍스트에서 재구조화되거나 재맥락화되고 목표문화권 독자들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 번역서를 둘러싸고 결텍스트 요소들이 첨가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특징이다(Bassnett 1990: 169-177).

동일한 맥락에서 번역은 르페브르에 의해 다시쓰기(rewriting)로 정의된다. Lefevere(1990a: 2-28)는 그의 저서 『번역, 다시쓰기 그리고 문학 명성의 조작(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에서 번역, 문학 구성 선집 anthologization), 역사 기술, 비평, 편집, 결텍스트, 각색, 요약 등에 작동하는 다시쓰기가 문학작품의 수용과 정전화(canonization)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경우 ‘리라이팅 작업’은 다양한 이데올로기와 지배적 문학사조인 포에틱스(poetics)에 따른 특정 목적을 위해 대체로 문학작품을 조작한다. 따라서 번역을 통한 문학작품의 수용과 생산은 문화와 역사라는 광범위한 이론적 틀(framework)에 놓여지며 문학작품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이 함께 고찰된다. 그는 특히 문학작품의 번역을 통한 수용과 정전화를 지배하는 매우 구체적인 요소들, 즉 권력, 이데올로기, 제도, 조작 등의 이슈에 관심을 집중한다. 문학을 역동적인 다중시스템의 구성체로 간주하는 폴리시스템(polysystem) 이론의 영향을 받은 Lefevere에게 있어서, 번역을 비롯한 다시쓰기를 통제하는 세 가지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문학시스템 내에서 전문성과 권위를 보유한 전문가 집단과 문학시스템 밖에서 강력한 권력을 지닌 후원자 집단 그리고 당대의 지배적 문학사조인

포에틱스이다. 이 중 문학시스템 내의 비평가, 작가, 번역가 등 전문가 집단이 ‘다시 쓰는’ 비평은 특정 문학작품이 목표문화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와 일반 대중의 문학 소비 흐름을 지배하고 좌우하는 경향이 있다. 문학작품을 심도 있게 고찰한 후 가치 판단을 내려 원천텍스트에서 지배 이데올로기와 충돌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동시에 목표문화권에 동화되고 편입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요건을 모색하여 원천텍스트에 대해 수용 가능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학작품은 번역과 비평을 거쳐 목표문화권에서 그것의 이미지가 새롭게 기획되고 형성되어 독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간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와 특성을 부여받아 새로운 문화적 맥락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상술한 번역 연구의 문화학적 관점과 번역에 대한 문화적 정의가 가리키는 번역의 핵심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는 목표문화권으로의 귀속(appropriation)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되지 못한 외국텍스트의 배제, 원천텍스트의 선정, 번역의 담론전략 개발, 번역결과물의 순환에 이르기까지 번역의 모든 단계는 목표문화권의 관심사, 가치, 신념 등에 의해 조정된다. 번역은 원천텍스트를 충실하게 재생산하는 대신, 수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만한 것들을 반영하는 해석을 원천텍스트에 각인시킨다. 이 각인 과정에서 원천텍스트에 내포된 의미, 가치, 기능 등의 복합체는 번역을 거쳐 ‘수용자 문화권’으로 건너오면 부족해지거나 초과된다. 수용 상황과 분리될 수 없는 번역은 자국의 특정한 독자층이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가치들을 원천텍스트에 각인하여 원천텍스트를 자국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적 귀속 과정은 특정 번역 전략에 따라 원천텍스트를 목표문화권의 담화들로 다시 쓰는 작업 중에 가장 강력히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번역 전략이 결국 목표문화권에서 중시되는 문화적 가치들의 취사선택을 수반하기 때문이다(Venuti 2011: 180-183).

영미문화권의 자국 중심적인 ‘자국화 번역(domesticating translation)’을 비판해 온 Venuti(2006)는 그의 저서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The scandals of Translation)』에서 번역의 ‘잘못된’ 상황(circumstance)이나 상태(condition of things)를 고발하면서 번역을 둘러싼 다양한 차원에서의 불균형과 불평등한 관계들이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 번역하는(translating) 문화에 봉사하는 행위로서의 번역을 집중 조명했다. 그는 이 책에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성서 번역부터 일본 현대소설의 영어 번역에 이르기까지, 자국화 번역 방식 가운데 하나인 문화적 귀속에 관한 광범위하고 적절한 사례들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원천텍스트를 ‘수용자 문화’

에 귀속시키는 번역은 어떤 외국텍스트의 자국적 동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달리 말하자면 번역 작업은 필연적으로 자국 문화 가운데 순환하는 특정 문화적 가치 및 규범들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적 동화의 구현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천텍스트가 특정 번역 전략에 따라 번역텍스트 담화로 다시 쓰여지거나, 번역텍스트를 둘러싼 메타텍스트가 특정 문화적 담론 안에서 쓰여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일례로 청말의 대표적 문학번역가였던 린수(林緒)는 번역 작업을 수행하면서 서구 소설의 선별에서나 번역을 위한 담화 전략의 전개에서 외국 것을 친숙한 유교적 전통에 동화시킴으로써 즉각적인 가독성과 공감적 동일시를 획득하였다. 중국의 마지막 왕조인 청조가 쇠망의 길로 접어들었던 20세기 초, 그는 중국 전통의 유교적 가치들에 동화될 수 있는 외국텍스트들을 선별하여 문언(文言)이라는 고전 중국어로 옮겼다. 그는 1899년 소(小) 뒤마(Alexandre Dumas fils)의 연애소설 『춘희(La Dame aux camélias)』를 『파리 다화녀가 남긴 이야기(巴黎茶花女遺事)』로 번역하여 출간하면서 이 원작의 여주인공 마르그리트를 고대 중국의 충신인 관룡봉(關龍逢)이나 비간(比干)에 비견하여 청말 대다수 지식인 사대부층의 눈시울을 뜨겁게 붉혔다. 위 두 충신이 그들의 황제 걸왕(桀王)과 주왕(紂王)을 섬겼던 것처럼 고급 창부 마르그리트가 그녀의 연인 아르망을 지극히 섬겼음을 번역텍스트에 삽입된 개인적 감상에서 강조하여 전통적 유교적 가치 가운데 하나인 충성심을 부각하고 호소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번역 작업은 청조는 체제이완과 외부충격으로 급속히 침식되고 있었지만 청조의 유교적 가치는 아직 건재하여 원천텍스트에 투영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즉, 원작에서는 방탕한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사랑의 희생을 통해 하느님에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기독교적 해석이 편찬 의도의 주를 이룬다. 하지만 린수의 번역에서는 번역가의 논평과 의견을 삽입하는 기법을 통해 원작의 기독교적 의미가 완전히 삭제되고, 남녀 간의 사랑을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은유하는 코드로 활용했던 중국고전시가의 문학전통이 전경화되었던 것이다(김소정 2014; Venuti 2006).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을 분석하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상술하였듯 번역텍스트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 번역서에 대한 개별 비평(review), 즉 서평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간지, 주간지, 문예지, 기타 잡지 등 다양한 정기간행물에 실린 번역서에 대한 서평은 번역서를 대중에게 소개하고 독자들이 미리 그 작품에 대해 인상을 가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작품의 저자와 번역서에 대한 전반적인 반응을 드러내면서 목표문화권의 번역서에 대한 관념 및 시각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이는 ‘자민족 중심주의적 자국화(ethnocentric domestication)’라고 볼 수 있는, 특정 문화적 요소를 각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안미영 2019; 이형선 2021; Bielsa 2013; Gouanvic 1997; Kershaw 2010; Rabut & Pino 2019; Venuti 2006). 이러한 선행연구의 사례로서 Kershaw(2010)는 유대인 출신 프랑스 작가 이렌느 네미로브스키(Irène Némirovsky)의 소설 『스위트 프랑세즈(Suite française)』가 영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 보기 위해 번역 비평 이외에 이것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서평을 분석한 바 있다. 『스위트 프랑세즈』는 이렌느 네미로브스키가 1942년 7월 헌병대에 의해 아우슈비츠(Auschwitz)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까지 집필되던 작품이다. 1942년에 쓰여졌지만 그녀 사후 62년 뒤인 2004년에야 출판이 되었다. 엄마의 원고를 간직하고 있던 큰 딸은 이 원고가 어머니의 고통스런 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줄곧 꺼내지 못하다가, 1998년에야 읽기 시작했고 이것이 일기가 아닌 소설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출판사를 접촉했고 이 소설은 2004년 프랑스에서 출판되어 대형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소설은 전쟁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상황적이고 심리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사실적으로 묘사해 놓았다. 프랑스에서는 출간 당시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는 점과 소설 원고의 극적인 발견 및 문학상 수상이라는 측면이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홍보되었다. 영국에서는 2006년에 번역, 출간되었는데 당시 영국의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 서평은 이 소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소설의 주제 및 내용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허구적 재현, 홀로코스트(Holocaust), 나치 독일의 괴뢰정권이었던 비시(Vichy) 정부 하의 유대인 작가의 운명 등의 내용이 강조된 것이다. Kershaw는 이에 대해 홀로코스트라는 주제는 일반적으로 대다수 서유럽 독자들이 관심을 보이는 문화적 요소인데, 서유럽 독자들이 대체로 희생자와 생존자가 남긴 진실된 증언에 매혹되는 반면, 영국 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홀로코스트와 2차 세계대전을 다룬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엄청난 호소력을 지닌다고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한 바 있다. Kershaw가 분석한 문화적 관심사의 차이는 『스위트 프랑세즈』의 경우에도 유효했다. 실제로 프랑스의 작품 서평은 영국과는 상이한 반응을 보였는데, 소설의 주제 및 문학적 특성보다는 작가의 삶과 연관된, 작품 속 ‘사실적 측면’을 상대적으로 많이 언급했다. 즉, 작가의 전기적 요소에 기반한, 작품의 ‘진정성(authenticity)’에 보다 많이 주목했던 것이다.

본고는 상술한 선행연구의 연구방법론에 기반하여 소설 『제7일』의 초국적 수

용을 문화적 귀속이라는 번역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제7일』의 한역본과 영역본의 겹텍스트 및 서평(한역본 16편, 영역본 14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특정 번역서에 대한 개별 비평, 즉 서평은 목표문화권에서 독립적으로 순환하는 번역텍스트에 대한 일반적 메타 담론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서의 서평은 해당 번역텍스트가 어떠한 사회문화적 조건에서 생산되고 수용되며 소비되어 왔는지 중요한 통찰을 제시해온 바 있다(Gürçağlar 2002: 44-59). 이 글에서는 번역서 서평 분석을 통해 번역서 수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해당 목표문화권의 문화적 요소를 중심으로 번역의 문화적 귀속 측면을 기술한다.

3. 『제7일』 작품 소개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은 이승의 삶을 마친 양페이와 이승과 저승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떠돌며 ‘죽어서도 매장되지 못한’, 서러운 영혼들을 하나둘씩 만나면서 이승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는 이야기다. 중국의 속설에 따르면 이승에서 애도하는 이도 유골함도 묘지도 없이 죽은 사람은 저승이라는 ‘안식의 땅’에 갈 수 없어 ‘중간지대’를 떠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이 소설에서 ‘7일’이라는 시공간이 인생을 마감한 모든 영혼에게 대입된다. ‘7일’은 묘지에 안장되기 전 이승의 잊지 못할 인연들을 만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저승으로 가지 못하는 영혼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공간이기도 하다. 식당 화재 사고로 죽은 양페이는 7일 동안 첫째 날, 둘째 날 등을 차례로 지내면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는데, 이야기는 그가 이승의 삶에서 마주치고 겪었던 인연들과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양페이는 죽은 뒤 7일 동안 삶의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죽은 인연들을 차례차례 만난다. 자신을 친아들처럼 젖을 먹여 키워주고 아껴주었던 이웃집 리아쭈마, 예쁘고 똑똑했지만 가난이 싫고 야심이 많아 사업가를 따라갔다가 끝내 고위관료의 정부로 자살한 아내, 산아제한 정책으로 강제 유산되어 강에 버려진 스물일곱구의 영아 시체, 경찰에게 취조받다가 고향을 걸어차여 성불구가 되었다며 공안국 대문 앞에서 3년 동안 시위를 지속해온 여장매춘남 리씨, 양심을 품은 리씨에게 공안국에서 칼에 찔려 살해당한 젊은 경찰, 경찰의 모진 고문에 정신병이 있는 아내를 죽였다고 허위자백을 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농부, 당국의 무자

비한 강제 철거 작업에 집에서 잠을 자다 압사당한 부부, 양페이와 함께 식당 화재 사고로 죽은 국수집 사장, 지하 방공호에서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사준 아이폰 4S가 가짜임을 알게 된 후 속았다는 배신감에 투신자살한 미용실 직원 슈메이(鼠妹), 죽은 여자친구 슈메이의 묘비와 묘지를 마련해주기 위해 신장을 밀매한 후 후유증으로 사망한 우차오(伍超), 기차역의 젊은 선로전환공이었지만 철길에서 주워온 양페이를 애지중지 기르다가 결혼도 못하고 은퇴한 후 림프암으로 죽은 양아버지 양진바오(楊金彪).

그리고 양페이가 이러한 소중한 인연들과 7일 동안 조우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승의 비참한 사건사고가 날카롭게 묘사된다. 현대중국 사회의 극심한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사실적으로 고발되고 비판되는 것이다⁷⁾. 양페이와 그의 소중한 인연들의 죽음은 모두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 같이 자살 혹은 사고 사이다.

죽은 지 첫째 날, 양페이는 자신이 단골 식당 국수집에서 헤어진 전 부인의 자살 기사를 읽다가 망연자살하여 화재 사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즉사했음을 알게 된다. 국수집 사장님은 단골손님이었던 양페이에게 식당의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안, 소방, 위생, 세무 같은 부서에 뇌물이나 선물을 바쳐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경찰이나 소방관, 보건과와 세무서 직원들이 특하면 찾아와 잔뜩 먹고 마신 다음 돈을 내지 않고 가버린다고 토로하곤 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탄자신(譚家鑫)식당의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한 고위공무원의 사망 원인이 과로사로 보도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이 시장이 호텔에서 모텔과 최고조에 다다를 즈음 돌연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 시장의 사망 보도 이후에는 한 법학과 교수가 등장하여 주택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시위 사건에 대해 폭력 사건이라고 비난한 다음, 민중은 정부를 믿고 이해하며 지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료의 부패, 언론 조작, 권력에 영합하는 지식인이 고발되고 비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날에는 양페이의 아내였던 리칭(李靑)이 육조에서 손목을 칼로 그어 자살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리칭은 양페이와 결혼 생활을 하던 중 한 사업가의 유혹에 넘어가 양페이와 헤어지고 사업가와 재혼한다. 그녀는 고위관료의 정부가 되어 성공한 사업가로 변모하지만, 결국 공무원과 결탁된 비리에 연루되어 마지막까지

7) 학술계에서도 김명희(2018), 김현주(2022), 황정일(2015), 潘英淑(2022) 등은 이 소설을 중국사회의 부조리 비판 중심으로 독해한 바 있다.

양페이를 추억하다가 생을 마감한다. 리칭이라는 중국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상징하는 인물을 통해 중국사회의 정경유착과 권색결합(權色結合)이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날에는 양페이의 아버지가 집에서 사라진 날, 양페이가 거주하는 도시에서 발생한 쇼핑몰 화재 사건이 다루어진다. 텔레비전 뉴스는 이 화재 사건의 사망자 수가 일곱 명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인터넷 소식은 관련 사망자 수가 이미 백 명이 넘었다고 보도한다. 한편, 리아쭈마는 장을 보고 집에 돌아가다가 다리를 건널 때 강물에 갇난아이들의 시체가 떠다니는 것을 발견한다. 올곧은 성격의 리아쭈마는 그냥 집에 가지 않고 장비구니를 든 채 신문사로 향한다. 오전 내내 두 명의 기자와 십 여 명의 시민이 스물일곱 구의 영아 시체를 찾아낸다. 하지만 도시의 신문사는 윗선의 지시를 받아 위 두 기자가 작성한 기사를 신지 않는다. 리아쭈마는 며칠 뒤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영아 유기 사건과 권언유착이 고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날에는 미용실 직원으로 일하는, 가난한 연인 슈메이와 우차오가 등장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2세대 농민공으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전전하는 ‘쥐족(鼠族)’이다. 지하 방공호에 거주하는 중국의 젊은이들은 쥐처럼 지하에서 나와 하루 동안 일한 뒤 다시 지하로 돌아가기 때문에 ‘쥐족’이라 불린다. 현대중국 사회의 극심한 빈부 격차가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날에는 건물 세 동을 철거하기 위해 시에서 파견한 사람들과 이사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대치하는 장면이 묘사된다. 오전에 화성기의 경고 방송이 끝나고 강제 철거 작업이 시행되었지만 정씨 부부는 야근을 하고 새벽에 들어와 너무 피곤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그대로 매몰된다. 정씨 부부의 초등학교 딸은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집 앞에서 숙제를 하며 부모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당국의 무자비한 강제 철거가 날카롭게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날에는 신장을 팔기 위해 장기 밀거래소에서 지하생활을 시작한 우차오의 모습이 묘사된다. 우차오는 어서 빨리 자신의 조직과 맞는 사람이 나타나 신장을 판 다음 자살한 여자친구 슈메이에게 모비와 모지를 마련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는 신장을 적출하고 일주일 뒤 지하 방공호의 거주지로 옮겨왔지만 고열이 내리지 않아 수차례 정신을 잃고 결국 이승에서 눈을 감는다.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장기밀매가 폭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날에는 아버지를 찾아 헤맸던 양페이의 사후 여정이 완성된다. 그는 ‘중

간지대'의 화장대기실에서 화장을 기다리는 영혼을 안내하는 아버지와 재회한다. 이승에서 양폐이의 아버지는 은퇴 후 림프암이라는 불치병에 걸린다. 그리고 이를 알게 된 아들이 직장도 그만두고 집도 팔아 자신의 치료에 전념하자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집을 나간다. 양폐이의 아버지는 자신이 먼저 죽었는데도 죽은 양폐이를 보자마자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린다.

작가 위화는 위와 같이 움니버스 구조의 에피소드를 통해 현대중국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날카롭게 고발한다. 하지만 비판적 시선으로 여러 사건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서글픈 민중의 사연을 그려낸다. 즉, 인간의 따스한 공감과 연민의 마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⁸⁾. 양폐이의 아버지 양진바오는 철길에서 주워온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려운 살림 속에서 개인의 행복을 포기한 채 양폐이를 애지중지 키우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 양진바오의 이웃인 하오창성(郝强生)아저씨와 리웨전(李月珍)부부도 양폐이를 함께 정성껏 돌봐준다. 양폐이 역시 불치병에 걸린 아버지의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고 병구완을 위해 직장까지 그만둔 다음 매일 밤 아버지 곁에서 잠든다.

무엇보다 이 소설에서는 이승에서 애도해줄 이가 없어 저승의 안식의 땅에 갈 수 없는 영혼들이 '중간지대'의 따뜻한 휴식처에서 서로를 위로한다. 이 휴식처에서 '죽었지만 매장되지 못한 이들'은 이승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위로하고 치료하며 서로에게 정신의 안식처가 되어준다. 여장남자 매춘남에게 살해된 경찰과 이로 인해 사형당한 매춘남은 이곳에서 함께 바둑을 두며 한담을 나누는 절친한 벗으로 변한다. 이승에서 남자친구 우차오가 신장을 팔아 유골함과 묘지를 마련해주고 진심으로 애도해준 덕분에 저승으로 가게 된 슈메이의 몸을 저승으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꽃과 풀과 강물로 씻어주고 축복해주며 배웅해주는 광경은 이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다.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은 몽환적 형식으로 실제 사건을 구성하여 현대중국 사회를 깊숙이 들여다보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동시에 공감과 연민의 마음으로 냉혹하고 억압적인 현실을 버려내는 소시민의 삶을 생생히 그려낸다. 이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 '곁을 나눌 이'가 아닌가를 되묻는, 빛나는 수작이다.

8) 심혜영(2006), 洪治綱(2013), 劉勇(2006) 등은 1990년대 위화의 문학실천 전환을 논하면서 공감과 연민을 위화 창작의 새로운 토대로 제시한 바 있다.

4. 『제7일』 한역본 및 영역본의 서평 비교 분석

본장의 사례 분석에서는 2장의 이론적 배경 및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의 한국적 서평과 미국적 서평 특성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문화적 귀속 현상을 기술하기로 한다. 분석대상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원전 『第七天』은 중국의 신성(新星)출판사가 2013년 6월에 발간하였다. 한역판 『제7일』은 문현선이 번역했고 도서출판 푸른숲이 2013년 8월에 출간하였다. 영역판 『The Seventh day』는 앨런 바(Allan H. Barr)가 번역하였고 앵커북스(Anchor Books)가 2016년 1월에 출간하였다.

4.1. 『제7일』의 한국적 서평

한국에서의 『제7일』에 대한 전반적인 비평 양상 가운데 하나는 현대중국 사회 비판을 주요 입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평은 책의 주제를 현대중국 사회의 부조리 및 불평등 고발로 기술하고 있다. 일간지 『세계일보(世界日報)』의 서평 제목은 ‘죽은 자들이 고발하는 부조리한 세상’이고 주간지 『시사인(시사 in)』의 서평 제목은 ‘저승도 못 가게 하는 부자들의 천국’이다. 세계일보의 문학전문기자 조용호가 쓴 서평 기사(2013. 8.30)는 다음과 같이 『제7일』이 현대중국 사회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이라는 목표문화권에 수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 작가 위화의 장편소설 ‘제7일’이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었다. 죽은 자들을 화자로 내세워 산 자들의 세상을 신랄하게 풍자하는 작품이다. 주인공 양페이(양페이가 스스로 상장(喪章)을 달고 자신을 소각하러 화장장인 빈의관(殯儀館)에 갔다가 7일 동안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떠도는 이야기가 축이다. 이 과정에서 자본의 해일에 휩싸인 현대중국 사회의 부조리와 슬픔을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드러낸다.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무대로 판타지 기법을 도입한 측면이 눈에 띄지만, 문학적인 완성도보다 현대중국 사회의 만화경을 위화 스타일로 소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작가 위화도 『제7일』의 출간과 맞춰 이루어진 방한 인터뷰를 통해 “『제7일』은 허구가 아니라 현실에 바탕을 두었다. 지금의 중국은 소설보다 실제 모습이 더 황

당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국의 대다수 서평자들 역시 “현재 중국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작용으로 불평등이 드러나고 있다. 불평등을 소설로써 다루고 싶었다(채널에스 2013. 10.4)”는 위화의 메시지에 화답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제7일』비평 양상은 미국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때 작품에 내재된 휴머니티 정신과 가족 서사에 보다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서평자들은 작가 위화의 보편적인 휴머니티 관점에 대해 찬사를 던졌다. 그것은 작가 위화의 소외된 이들에 대한 연민과 인간의 따뜻한 본성에 대한 믿음이었다. 『경향신문』의 서평자(2013. 8.30)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화의 소설이 이처럼 소시민들의 몰락하고 망가져가는 삶을 그리면서도 유머와 따뜻함을 잃지 않는 것은 그들에 대한 작가의 애정 때문이다.” 『한겨레신문』의 서평(2013. 9.8) 역시 인간 존재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면서 작중인물들이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하며 애도하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서로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을 전제하면서 『제7일』을 이승에서 인간적 존재의 가능성이 파괴된 채 죽어간 사람들에게 바치는 한판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애도소설이라고 평했다. “이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서로 지독히도 사랑했다. 부모는 자식을 찾아다니고 연인은 연인을 찾아다니고 죽어서도 그들이 사랑했던 기억을 끝없이 더듬고. 그러나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였어도 너무 슬펐다.” 『서울신문』의 서평도(2013. 8.31) 이 소설이 극심한 양극화와 부정부패를 겪는 중국사회의 극악한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고 평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 연민, 희생, 헌신, 화해 등 인간의 따뜻한 심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작가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끝내 놓지 않은 이유다. 개인의 행복까지 포기하면서 양폐이를 길러낸 아버지는 불치병에 걸리자 자식에게 짐이 될까 홀연히 떠난다. 남성 매춘부에게 살해된 경찰과 6개월 뒤 사형당한 이 매춘남은 죽어서 바둑을 두는 절친한 벗으로 변한다.”

한국의 서평자들은 또한 가족이란 친근한 코드에 초점을 맞추며 『제7일』을 하나의 가족 서사로 소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문화일보』의 서평은(2013. 9.3) 다음과 같은 인용으로 시작하고 있다. “나의 어린 시절은 웃음소리처럼 마냥 즐거워, 나는 내가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먹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 내가 철도 위로 떨어진 뒤 아버지의 인생길은 순식간에 좁아져 버렸다.” 이는 피로 낳은 부모가 아니라도 희생과 헌신으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의 뜨거운 부정을 부각한다. 나아가

이 책의 줄거리를 “사고로 버려진 아이를 총각의 몸으로 키우는 아버지와 그들을 돌봐주는 아버지 친구 부부의 이야기”로 요약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유사 가족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과 서로를 증오하는 혈연 가족의 모습을 대비시킨다”고 평함으로써 작품을 ‘가족이야기’의 형식에 담아낸다. 물론 여기서 가족은 피의 결사인 혈연공동체를 넘어 함께 먹고 함께 살아가는 ‘연합의 공동체’를 가리키며, 그들의 이야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주고 끌어안는 식구로 거듭나는 서사로 볼 수 있다. 위 서평은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가족처럼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제7일』이 끝내 가족구성원 간의 사랑과 결속을 지켜내는 가족서사로 읽혀질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의 서평(2013)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작품의 줄거리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기차가 낳은 아이’양페이는 태어나면서 생모와 이별하고 철도 선로 인부였던 아버지에게 극적으로 구출되어 그의 아들로 살아가게 된다. 양페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고 나서 7일 동안 연옥에서 이승의 인연들을 만나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가족애와 가족 유대의식에 기반한 가족서사의 형식으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소설에서 주인공 양페이가 죽은 후 ‘중간시대’에서 궁극적으로 찾고자 했던 이승의 인연은 그를 무한한 헌신과 사랑으로 길러주었던 아버지였다.

『제7일』에 대한 한국이란 목표문화권의 호의적 서평은,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소설 수용의 일반적 특징을 이루는 현대중국 사회 비판, 휴머니즘, 가족 서사의 경향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가족 서사 형식의 독법은 이 소설을 한국 문화를 지배하는 일반적 가치에 동화시키는 대중미학적 접근 방식으로 풀이해볼 수 있다. 전성옥은 위화 소설의 한국적 수용 양상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특히 호응을 얻은 네 편의 장편소설 『인생(活着)』,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 『형제(兄弟)』, 『제7일』을 가족 서사 계보에 소속시키며, 한국의 출판시장에서 이들 소설의 선전은 이 작품들의 중국적 특색을 능가하는 가족 서사적 보편성에서 주요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고찰한 바 있다. 가족 서사의 보편적 동력은 가족이란 유기적 전체를 그 파괴세력에 맞서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욕망인데, 위의 네 편의 장편소설이 모두 이 욕망이 점철되어 있는 ‘가족수난사’를 전경화시

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위화의 장편소설에서 가족 서사를 둘러싼 중국 근현대사는 후경화되어 그것의 역사적 배경이 진지한 표현의 대상으로 고뇌되기 보다는,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내야 하는 거대한 속박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그는 ‘가족수난사’를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풀어낸 위화의 장편소설의 서사적 특질이 소설, 영화, 드라마에 이르기까지 가족 서사가 압도적인 한국 대중문화의 유력한 경향에 부합하여 위 장편소설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일반적인 수용을 결정지었다고 진단한다(전성욱 2015: 168-173).

기실 가족 서사에 대한 열광은 현대한국 사회 공통의 감수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내에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2000)』와 『국제시장(2014)』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다수 기성세대 한국인은 가족애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가족이야기에 열광하며 가족 사랑이란 감정에 의지하여 현실을 긍정하는 자세를 보인다. 가족이야기를 선호하는, 한국 문화의 이 특유한 현상은 가족 구성원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이고 가족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행동을 낳는 가족주의(familism)라는 관념에 기인한다. 가족주의는 전통적인 가족관계가 다른 모든 사회적 관계에 우선하고 가족 간에 적용되는 가치나 규범이 다른 사회적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현상의 기반이 된다. 한국 사회 특유의 가족주의를 집중적으로 연구한 김동춘과 이명호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자기 혈족 이외의 사람을 신뢰할 수 없었고 생활의 보급이 오직 가족에 의해 이루어진 조선 사회의 특징에서 유래했으며 현대사회에서도 정치사회적 신뢰의 상실이 가족주의를 오히려 강화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김동춘 2020; 이명호 2013).

『제7일』의 한국적 서평에 작용한 ‘가족 서사 코드’는 상술하였듯 한국의 광범위한 일반 독자들에게 의해 공유되는 것들이었다. 여러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 소설의 즐거리를 헌신적인 아버지와 이에 보답하는 아들의 이야기로 요약하고 주인공이 거치는 사후세계의 7일 간의 여정을 잊지 못할 이승의 인연을 다시 만나 사랑을 재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가족 서사 선호라는 한국 사회의 지배적 문화적 가치에 부응하는 선택이라고 해석해볼 수 있다. 번역서 『제7일』의 비평 담론의 한 축에는 가족 서사라는 대중 미학이 각인되어 있으며 이에 기반한 서사적 모미가 전면부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역본 앞표지와 뒷표지의 겹 텍스트 문구 역시 이러한 유추를 더욱 강화시킨다. 앞표지의 문구는 작품의 주제를 “이승과 저승에서 영원한 인연을 다시 찾은 7일간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표현한 뒷표지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나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아. 조금도 두렵지 않단다. 내가 두려운 건 다시는 너를 못 보는 거야.” 이는 철도원으로 퇴직한 후 림프암에 걸린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집도 팔고 직장도 그만둔 양페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되기 싫어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간, 양페이의 아버지가 양페이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말이었다.

4.2. 『제7일』의 미국적 서평

『제7일』에 대한 미국의 서평을 보면 한국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소설의 미국적 서평을 특징짓는 것은 현대중국 사회의 부조리 비판이라는 상대적으로 일관된 수용 양상이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및 주간지와 온라인 서점 사이트에 실린, 대부분의 서평은 작가 위화의 중국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주목하며 이 작품이 고속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중국사회의 부조리와 빈부격차 및 불평등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고 평하였다. 전형적인 예로 『뉴욕타임즈(Newyork Times)』 북리뷰의 서평자는(2015. 3.22)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위화는 『제7일』에서 정부의 부패와 무분별한 소비주의 문제 등 현대중국 사회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다. 양페이는 연옥의 여정에서 이미 죽은, 이승의 인연들을 만난다. 이들은 권력자와 재력가에게 일상적으로 학대당하는 중국 소시민의 이야기들과 함께 부정부패, 경찰폭력, 정치적 억압 및 주택철거 등의 섬뜩한 문제를 전달한다. 물질주의적이고 탐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사회로 변모해가는 중국 사회에서는 고인이 된 가족을 기리고 기억하는 의무를 다하기가 어려워졌다. 많은 독자들에게 이 판타지 소설은 중국의 새로운 현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으로 다가올 것이다.”⁹⁾ (필자의 번역임)

미국의 공영라디오 방송 『NPR(National Public Radio)』의 서평(2015. 1.19) 역시 『제7일』이 암울하고 혼란스러운 현대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준다고 평하면서 이 소설과 중국사회 비판 사이의 등식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서평은 다음과

9) In ‘The Seventh day’, Yu amplifies his critique of contemporary Chinese society, especially government corruption and his country’s headlong affair with consumerism. In Yangfei’s limbo walk, the dead offer lurid accounts of corruption, police violence, political repression and the demolition of homes, along with the tales of the day to day mistreatment suffered by ordinary Chinese at the hands of the powerful and the wealthy. In ‘The Seventh day’, a materialistic, greedy, increasingly impersonal society has made obligations to remember and honor one’s lost family members difficult to fulfill. For many, this fantasy may be Yu’s most devastating critique of the new Chinese reality.

같이 소설에 나오는 여러 에피소드가 중국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야기들은 현대 중국의 중요한 현실을 대변한다. 이는 무자비한 탐욕, 소비주의로 치닫는 사회의 물욕, 사악한 계층 상승, 족벌주의 등이다.”¹⁰⁾ 온라인 서점 『반스앤노블(Barnes and noble)』의 서평(2015) 역시 유사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주인공 양페이(양페이의 사후세계 여정이 중국이라는 광활한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하였다. “양페이의 여정은 그의 광대한 조국의 부조리와 슬픔의 외관을 조명한다.”¹¹⁾ 이에 반해 한역본의 서평에서는 주인공 양페이의 사후세계 여정을 잊지 못할 이승의 인연과 재회하는 여정이라고 보는, 작품 내러티브 중심의 해석이 많았다. 위의 『제7일』의 미국적 서평 사례는 중국사회 이해 및 비판이라는 일반화의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와 함께 『제7일』의 미국적 서평을 특징짓는 것은 미국의 서평자들이 작품 속 이야기들을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과 저자 위화가 현대 중국의 서사를 날카롭게 풍자하며 전달하는 작가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알레고리와 작가 위화를 읽는 데 적용된 코드는 중국 소시민의 안온한 삶을 질식시키는, 중국 권위주의 정부 체제에 기반한, 중국이란 나라의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이다. 『미니폴리스 스타트리뷴(Minneapolis Star Tribune)』의 서평은(2015) 『제7일』이 다음과 같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중국의 어두운 현실을 폭로하는 작품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위화의 소설 『제7일』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중국의 혼란에서 발생하는, 삶과 죽음에 대한 정치적 알레고리이다. 양페이의 여정은 현대 중국의 어두운 탐욕을 빈번히 폭로한다. 이웃의 갑작스런 죽음, 부패하고 오만한 중국의 정부 관료, 비극적 사고를 은폐하는 중국 당국, 그리고 그로 인한 절망감으로 중국의 소시민들은 자살을 하거나 장기를 밀매하러 나선다.”¹²⁾ (필자의 번역임)

『뉴올리언스 리뷰(New Orleans Review)』의 서평(2015) 역시 다음과 같이 이 소

10) These stories represent an important reality of modern China: The wanton greed, the desire for material objects in what is increasingly a consumerism society, the vicious social climbing, the nepotism.

11) Yang fei's passage traces the contours of his vast nation- its absurdities and its sorrows.

12) Yu Hua's novel 'The Seventh day' is a political allegory for life and death experienced in the chaos of a rapidly changing modern China. The journey more often reveals the dark belly of modern China with its overnight razing of neighborhoods, its corrupt and arrogant government officials, its cover ups of tragedies and the desperation of its citizens who commit suicide or sell their internal organs.

설이 현대 중국의 무자비하고 냉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이며, 작가 위화는 이러한 현실을 충실히 전달하는 수행인(bearer)임을 부각한다.

“위화는 현대 중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의 복잡성과 통찰에 대해 써내려간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최근 이 나라가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부각시킨다. 『제7일』은 현대 중국을 날카롭게 관찰하는데 성공했다. 간단히 말해서, 현대 중국에서 ‘발전’의 의미는 휴머니즘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 자체로 정의되는 것처럼 보인다. 13) (필자의 번역)

현대중국 사회 비판 위주의 위의 미국적 서평은 한국적 서평과 비교해볼 때 중국의 이미지와 관련된 서구의 메타 내러티브와 부합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메타 내러티브에는 중국 현대문학 작품의 번역 수행을 통해 중국이란 국가가 서방에서 억압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타자로 재현된다는 주장이 내포되어 있다(Lee 2015). 『제7일』은 물론 중국 사회에 팽배한 부조리와 모순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과 비판을 기록한 작품이다. 하지만 이 소설에 대한 미국에서의 비평은 이를 넘어서 보다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즉, 미국 사회의 문화적, 정치적 특수 상황에 따라 중국현대문학 텍스트를 미국적 특수성이 뚜렷한 번역 담론에 동화시킨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전체 출판시장에서 번역서의 비중이 3%가 되지 않는 미국 사회에서(Venuti 2008: 11) 미국이란 목표문화권에 소개되는 중국현대문학 작가들은 옌론펬커(閻連科), 위화, 쑤통(蘇童), 모언(莫言) 등 ‘논쟁적인’작가들에 국한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의 작품 가운데 중국의 정치적 억압을 강조하고 어두운 현실을 고발하는 작품들이 선택적으로 번역되어 영어권 독자들에게 소개된다. 옌론펬커의 40여 편이 넘는 소설 가운데 『딩씨 마을의 꿈(丁庄夢)』, 『인민을 위해 복무하라(爲人民服務)』, 『레닌의 키스(受活)』 등 중국 대륙에서 검열을 통해 출판 금지당한 작품들만 소수 번역되어 미국에서 출간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들 작품은 나아가 일반적으로 번역서의 겉텍스트나 유력 일간지의 서평을 통해 출판을 금지당한 ‘금서 프레임’이나 현대 중국의 어두운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필독서 프레임’으로 전경화되어 소개된다. 즉, 소설이라는 픽션 장르임에도 문학작품의 독특하고 풍부한 내러티브 대신 문학텍스트에 반영된 중국 사회

13) Yu Hua writes with complexity and insight into life in contemporary China. China's rapid industrialization highlights the latest challenges facing this nation. 'The Seventh day' has achieved a poignant look at contemporary China. Simply put, 'progress' in contemporary China seems to define itself by an absence of humanity.

의 어두운 진실이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현대문학 텍스트의 정보적 기능을 강조하는 번역 담론에는 서구가 지닌 중국이란 나라의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라는 메타 내러티브가 강력히 작동한다. 영어권의 서구 권 독자들에게 중국이라는 나라는 특정 문학작품의 선택적 전유와 대중매체의 선택적 보도를 통해 서구 문명과 완전히 상이한 문화적 공간이자 관리의 부정부패와 인권침해가 부단히 발생하는, 비민주적 독재체제 정권으로 각인되어 소개되어 온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Wang and Barr 2021; Lee 2015; Zhang 2012).

요컨대, 『제7일』의 미국적 서평의 일면적인 경향은 중국현대문학 텍스트를 번역을 통해 미국 고유의 정치적 가치와 문화적 관심사에 동화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서평은 작품 자체의 내러티브나 이야기 구조에 대해 언급하면서도 번역서의 일독을 통해 중국 사회의 어두운 진실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보다 강조한 바 있다. 즉, 미국적 서평의 선택은 『제7일』의 번역 과정이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의 중국이란 나라의 어두운 현실에 관심이 많은, 미국이란 목표문화권의 문화적 관심사에 부합되는 사실을 보여준다 하겠다.

기실 미국의 일반 독자들은 중국이란 ‘낯선 공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는 텍스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 번역, 출간된 위화의 작품 가운데 소설 장르를 제치고 『열 개의 키워드로 본 중국(2011)』이란 에세이가 가장 많이 판매되고 화제가 된 것이 이를 시사한다(Barr 2021: 94). 나아가 미국 사회의 이러한 문화적 관심사는 소설 『제7일』 영역본 결텍스트 소개문의 어휘에도 각인되어 있다. 『제7일』 영역본의 앞표지와 뒷표지에는 “위화의 새로운 중국 현실에 대한 가장 날카로운 비판(Yu’s most devastating critique of the new Chinese reality)”, “위화의 작품은 중국의 새로운 비상사태를 전달한다(Yu’s work carries new urgency)”,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중국의 혼돈(the chaos of a rapidly changing modern China)”, “암울하고 불안한 현대 중국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dark and disturbing, with much to say about modern China)” 등의 작품 소개 문구가 정보적 기능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영역본의 결텍스트와 서평에 각인된 이러한 문화적 관심사는 미국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 이야기를 중국의 억압적인 정치 상황에 대한 알레고리로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 텍스트들에 사용된 불안과 혼돈 같은 영어 표현들은 부정적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중국 사회에 대한 방어벽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로 영역본의 대다수 서평들은 작가 위화를 국공내전, 대약

진운동, 문화대혁명 등 중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기록해온 작가로 소개하고 중국 당국을 부조리가 만연한 전체주의 정권으로 특징지은 바 있다. 이는 소설 『제7일』이 미국 사회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을 차용한 정치적 알레고리 작품으로 수용된 측면이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하겠다.

5. 결론

본고에서는 번역서의 수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 중의 하나인 서평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 현상을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문화적 귀속으로서의 번역은 특정 외국텍스트의 자국적 동화를 의미하며, 번역서의 경우 목표문화권에서 지배적인 문화적 가치 및 관심사에 부응하여 수용되는 사실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자국적 동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원천텍스트가 특정 번역 담론에 따라 목표텍스트로 다시 쓰여지거나, 번역텍스트를 둘러싼 메타텍스트가 특정 문화적 담론 안에서 다시 쓰여지는 형태로 구현된다.

위에서 살펴본 서평을 종합해 보면, 번역서 『제7일』은 출간 당시 목표문화권의 문화를 지배하던 문화적 가치 및 관심사에 동화되어 수용된 측면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7일』에 대한 한국적 서평은 현대중국 사회 비판을 주요 입장으로 삼고 있었지만 등장인물의 휴머니티 정신을 부각하고 작품을 가족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는 경향도 보여주었다. 이 가운데 가족이라는 프레임으로 『제7일』을 읽어낸 것은 상술하였듯 가족의 가치를 긍정하고 가족 서사를 선호하는 한국의 문화적 가치에 이 소설을 동화시킨, 대중미학적 접근 방식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제7일』에 대한 미국적 서평의 경우, 이것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루는 것 역시 현대중국 사회의 부패 비판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부분의 서평자가 표면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중국사회의 부조리는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성격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소설에 대한 미국 사회의 일반적인 수용을 결정지은 중국사회 부조리 비판이라는 입장은 중국의 어두운 진실에 대해 알고자 하는 미국 독자의 관심사를 반영하면서도, 그 기저에 있는 서구의 중국에 대한 이국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제7일』의 미국적 서평은 당시 미국에 고양되어 있던, 중국이라는 ‘암흑사회’의 실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문화적 관심사에 부응한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제7일』의

한역본과 영역본의 책 표지 문구는 이러한 추론을 더욱 강화시킨다.

소설 『제7일』의 번역은 한국과 미국의 경우, 문화적 가치 및 관심사에 기반한 목표문화권에의 귀속을 거쳤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춘. (2020). 『한국인의 에너지 - 가족주의』. 서울: 도서출판 피어나.
- 김명희. (2018). 「위화의 제7일에 나타난 불평등과 경제적 인간」. 『현대유럽철학연구』 60: 277-305.
- 김소정. (2014). 「임서의 번역과 중국적 수용 - 파리다화녀유사(巴黎茶花女遺事)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 65: 237-264.
- 김현주. (2022). 「위화 소설의 서사 전략 및 그 특징 연구 - 형제와 제7일을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59: 139-165.
- 신다영. (2014). 「중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 연구 - 선충원의 변성(邊城) 번역본 분석」. 『T&I Review』 4: 1-20.
- 심혜영. (2006). 「1990년대 위화 소설의 휴머니즘과 미학」. 『중국현대문학』 39: 355-389.
- 심혜영. (2017). 「위화의 제7일(第七天) - 공간사유, 상상력의 특징과 희망의 정념」. 『중국현대문학』 82: 33-54.
- 안미영. (2019). 「조지 오웰 1984의 번역과 수용과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67: 315-345.
- 이명호. (2013). 「가족 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주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359-393.
- 이상원. (2011).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T&I Review』 1: 1-13.
- 이종민. (2008). 「위화의 새로운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형제 속의 개혁개방 시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45: 217-238.
- 이지민·한륜혜. (2022). 「문학 번역서 결텍스트 재정의와 하퍼 리의 앵무새죽이기 주변텍스트 통시적 사례 연구」. 『T&I Review』 12(1): 1-18.
- 이행선. (2021). 「오에 겐자부로에 번역 수용과 전투문학의 월경 - 1990년대 일본문학 붐, 한일 시민연대」. 『현대소설연구』 82: 443-482.
- 전성욱. (2015). 「위화 소설의 한국 수용에 대하여」. 『중국현대문학』 73: 159-188.
- 황정일. (2015). 「위화 제7일의 평등론」. 『중국현대문학』 72: 1-41.
- 潘英淑. (2022). 「위화 제7일 중 자살 의미 연구」. 『중국문학연구』 88: 215-237.

Bassnett, S. (1990). *Translation*. London/New York: Routledge.

Bassnett, S. (1990). Introduction. In Bassnett, S and Lefevere, A (eds.), *Translation, History and Culture*. London: Cassell Wellington House, 1-14.

Bielsa, E. (2013). Translation and the international circulation of literature. *The Translator* 19(2): 157-181.

Gouanvic, J. (1997). Translation and the shape of things to come : The emergence of American science fiction in postwar France. *The Translator* 3(2): 125-152.

Gürçağlar, S. (2002). What texts don't tell: The uses of paratexts in translation research. In Hermans,

- T (eds.), *Crosscultural Transgressions Research Models in Translation Studies II - Historical and Ideological Issues*. Manchester, UK: St. Jerome Publishing, 44-60.
- Kershaw, A. (2010). Sociology of literature, sociology of translation: The reception of Irène Némirovsky's *Suite Française* in France and Britain. *Translation Studies* 3(1): 1-16.
- Lee, T. (2015). China as dystopia: Cultural imaginings through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8(3): 251-268.
- Lefevere, A. (1992a).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New York: Routledge.
- Lefevere, A. (1992b). *Translation, History, Culture*. London/New York: Routledge.
- Pellatt, V. (eds.) (2013). *Text, Extratext, Metatext and Paratext in Translation*. Manchester UK: Scholars Publishing.
- Rabut, I. and Pino, A. (2019). Brothers and the reception of YuHua in France.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6(2): 99-110.
- Venuti, L. (2006).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임호경 역. 파주: 열린책들.
- Venuti, L. (2011). World literature and translation studies. In D'haen, T, Damrosch, D and Kadir, D (eds.), *The Routledge Companion to World Literature*. London/New York: Routledge, 180-193.
- Wang, B. and Barr, A. (2021). YuHua's works in English translation: An interview with Allan H. Barr. *Asia Pacific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 Studies* 8(1): 84-97.
- Zhang, W. (2012). Chinese literature in the making: An interview with Jonathan Stalling. *Translation Review* 84(1): 1-9.
- 劉勇. (2006). 『中國現當代文學』.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余華. (2013). 『余華精選集』.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 余華. (2013). 『第七天』. 北京: 新星出版社.
- 余華. (2013). 『제7일』. 문현선 역. 파주: 푸른숲.
- 余華. (2013). 『The Seventh Day』. Translated by Allan H. Barr. NewYork: Anchor Books.
- 張清華, 張新穎. (2013). 「余華長篇小說第七天研討會」. 『當代作家評論』 6: 77-83.
- [인터넷 자료]
- 주간현대. (2013). '허삼관매혈기' 위화의 새 장편소설 '제7일'. <http://www.hyundaenews.com/7046> (2022.6.1. 검색).
- 경향신문. (2013). 그들은 죽어서 비로서 평등해졌다... 중 작가 위화 새 장편. [https://www.khan.co.kr/article/201308302142315\(2022.6.2. 검색\).](https://www.khan.co.kr/article/201308302142315(2022.6.2. 검색).)
- 서울신문. (2013). 작가 위화가 길어올린 '무간지옥속 희망'.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31019013\(2022.6.2. 검색\).](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831019013(2022.6.2. 검색).)
- 동아일보. (2013). [문학예술] 죽고 나서 7일간의 여정... 中 위화의 신작소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830/57336130/1\(2022.6.3. 검색\).](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30830/57336130/1(2022.6.3. 검색).)

- 시사in. (2015). 저승도 못 가게 하는 ‘부자들의 천국’.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98>(2022.6.3. 검색).
- 한겨레. (2013). 우리 사회의 애도받지 못한 죽음들.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02552.html>(2022.6.3. 검색).
- 문화일보. (2013). 피를 나는 가족 vs 피 한방울 안섞인 가족.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3090301032430025007>(2022.6.4. 검색).
- yes24.com. (2013). 세계가 사랑한 작가 중국 최고 이야기꾼의 귀환!. <http://www.yes24.com/Product/Goods/9453659>(2022.6.4. 검색).
- ridibooks.com. (2018). 제7일. <https://ridibooks.com/books/2189000136>(2022.6.5. 검색).
- Aladin.co.kr. (2013). 제7일.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0282694>(2022.6.5. 검색).
- Bookinterpark.com. (2013). 제7일: 이승과 저승사이에서 영원한 인연을 다시 찾은 7일간의 이야기. https://book.interpark.com/product/BookDisplay.do?_method=detail&sc.prdNo=213005417(2022.6.7. 검색).
- 세계일보. (2013). 죽은 자들이 고발하는 부조리한 세상. <https://www.segye.com/newsView/20130830003322?OutUrl=naver>(2022.6.7. 검색).
- 연합뉴스. (2013). “죽었지만 묻힐 곳이 없소”...中소설가 위화 새 장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6450936?sid=103>(2022.6.7. 검색).
- 한겨레. (2013). 9월 2일 출판 잠깐독서. <https://www.hani.co.kr/arti/culture/book/601675.html>(2022.6.8. 검색).
- 데일리 노컷뉴스. (2013). 이승 인연 앙금 푼 연옥의 7일. <https://www.nocutnews.co.kr/news/1094387?c1=327&c2=459>(2022.6.9. 검색).
- 프레시안. (2013). 중국의 수만 ‘해골’, 왜 죽지 못하고 떠도나.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11528>(2022.6.10. 검색).
- Goodreads.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goodreads.com/book/show/22107229-the-seventh-day>(2022.7.1. 검색).
- Amazon.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amazon.com/Seventh-Day-Novel-Yu-Hua/dp/0804197865>(2022.7.1. 검색).
- The New York Times. (2015). ‘The Seventh Day,’ by Yu Hua. <https://www.nytimes.com/2015/03/22/books/review/the-seventh-day-by-yu-hua.html>(2022.7.1. 검색).
- Npr.org. (2015). Dark, Disturbing And Playful, ‘Seventh Day’ Takes On Modern China. <https://www.npr.org/2015/01/19/376093937/dark-disturbing-and-playful-seventh-day-takes-on-modern-china>(2022.7.2. 검색).
- THE WALL STREET JOURNAL. (2015). Death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Yu Hua’s ‘The Seventh Day’. <https://www.wsj.com/articles/BL-CJB-26350>(2022.7.5. 검색).
- Startribune.com. (2015). Review: ‘The Seventh Day,’ by Yu Hua, translated from the Chinese by Allan Barr. <https://www.startribune.com/review-the-seventh-day-by-yu-hua-translated-fro>

- m-the-chinese-by-allan-barr/288761081/(2022.7.7. 검색).
- NEW ORLEANSREVIEW.ORG.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neworleansreview.org/the-seventh-day/\(2022.7.7. 검색\)](https://www.neworleansreview.org/the-seventh-day/(2022.7.7. 검색)).
- Fantasticfiction.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fantasticfiction.com/y/you-hua/seventh-day.htm\(2022.7.9. 검색\)](https://www.fantasticfiction.com/y/you-hua/seventh-day.htm(2022.7.9. 검색)).
- Barnsandnoble.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barnsandnoble.com/w/the-seventh-day-yu-hua/1121527537\(2022.7.9. 검색\)](https://www.barnsandnoble.com/w/the-seventh-day-yu-hua/1121527537(2022.7.9. 검색)).
- Bookbrowse.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bookbrowse.com/bb_briefs/detail/index.cfm/ezine_preview_number/10150/the-seventh-day\(2022.7.9. 검색\)](https://www.bookbrowse.com/bb_briefs/detail/index.cfm/ezine_preview_number/10150/the-seventh-day(2022.7.9. 검색)).
- Thatsmags.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thatsmags.com/china/post/8848/book-review-yu-hua-the-seventh-day\(2022.7.11. 검색\)](https://www.thatsmags.com/china/post/8848/book-review-yu-hua-the-seventh-day(2022.7.11. 검색)).
- Kirkus Review.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kirkusreviews.com/book-reviews/you-hua/the-seventh-day-hua/\(2022.7.11. 검색\)](https://www.kirkusreviews.com/book-reviews/you-hua/the-seventh-day-hua/(2022.7.11. 검색)).
- Library Journal.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libraryjournal.com/review/the-seventh-day\(2022.7.11. 검색\)](https://www.libraryjournal.com/review/the-seventh-day(2022.7.11. 검색)).
- Publishers Weekly.com. (2015). The Seventh Day. [https://www.publishersweekly.com/9780804197861\(2022.7.11. 검색\)](https://www.publishersweekly.com/9780804197861(2022.7.11. 검색)).
- 中国作家网. (2013). 余华《第七天》引发探讨:小说如何深度表现当代中国. [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7-19/167729.html\(2022.7.12. 검색\)](http://www.chinawriter.com.cn/2013/2013-07-19/167729.html(2022.7.12. 검색)).
- 新浪娱乐. (2013). 余华出长篇小说《第七天》冷静看批判. [http://ent.sina.com.cn/s/m/2013-07-30/14273975826.shtml\(2022.7.12. 검색\)](http://ent.sina.com.cn/s/m/2013-07-30/14273975826.shtml(2022.7.12. 검색)).
- 中国文明网. (2013). 余华《第七天》:七年是否磨钝剑?. [http://www.wenming.cn/\(2022.7.12. 검색\)](http://www.wenming.cn/(2022.7.12. 검색)).
- 重庆晨报. (2013). 余华回应《第七天》争议:交稿时就等着大家来骂. [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2022.7.12. 검색\)](http://caijing.chinadaily.com.cn/2013-06/27/content_16671104.htm(2022.7.12. 검색)).

This paper was received on 22 October 2022; revised on 30 November 2022; and accepted on 3 December 2022.

Author's email address

zhiying2003@hanmail.net

About the author

Ji young Lee (first author) is a lecturer at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of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and sociocultural reception.